

2023. 12. 26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

전략산업기반과장	최종익	2133-8460
마곡단지지원팀장	김의중	2133-1512
마곡산업단지관리단(SBA) 마곡산단운영팀장	김대환	2088-2683
담당자	서보경	2133-1513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7쪽

### 첫 삽 뜬지 14년...마곡산업단지, 일과 삶 연결되는 연구개발 최적 도시로 변신

- 마곡산업단지, 대기업 46곳 포함 199개사 입주 확정...상시근로자 2명 중 1명은 연구인력
- 연구개발(R&D) 산업 클러스터 안착요인으로 교통, 주거, 상업, 문화예술 기능 손꼽아
- 서울식물원, LG아트센터, 스페이스K 등 64만<sup>m</sup> 규모 문화여가시설이 유입만족도 높여
- '24년 제2코엑스 완성, 전시·컨벤션 기능↑, '26년 강소기업 위한 공공연구개발센터 준공
- '27년 기업 입주 100%...혁신기업 융복합 생태계+도시기반시설로 연구개발 최적도시화

서울시가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서남권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. 일상생활의 먹거리를 키워내던 논밭 일대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첨단 연구개발(R&D) 산업 클러스터로의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.

○ '마곡'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 지었으며, 현재 엘지(LG), 롯데, 코오롱, 에쓰-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(전체 중 73%)를 완료했다.

시는 마곡산업단지는 당초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계획되어 조성된 만큼 입주기업의 매출, 일자리, 특히, 전문인력의 유입 등 모든 분야에서 연

연구개발(R&D)의 집적기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.

□ 먼저, 2022년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 4,433억 원으로 2021년 3조 4,947억 대비 2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(R&D) 예산의 15%에 해당하는 규모이다.

○ 2022년 정부 연구개발(R&D) 예산은 29조 8천억 원 규모이다.

※ 출처 : 마곡산업단지관리단(서울경제진흥원)에서 실시한 실태조사

□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·등록은 총 2만 4,239건으로 집계되었다. 특히, 해외 출원의 경우 8,273건으로 2021년 6,913건 대비 19.7%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.

□ 연구 전문인력도 마곡에 집중되고 있다. 2022년을 기준으로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 7,533명 중 52.6%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되었다.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.

□ 마곡산업단지의 일자리도 증가추세이다. 2022년 기준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(2만 7,533명)는 전년도 2만 4,178명에서 약 14% 증가했다. 시는 현재,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% 수준인 만큼 앞으로 신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 4,266억으로 2021년 18조 1,321억 대비 약 13%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.

○ 마곡산업단지에 부설연구소 및 본사(지사)를 둔 기업의 마곡사업장 기준 2022년도 총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로, 업종별 매출액은 ▲정보통신

신기술(IT) 12조 69억 ▲생명공학기술(BT) 1701억 ▲녹색기술(GT) 2조 8091억 ▲연구개발(R&D) 5조 4405억이다.

□ 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첨단 연구개발(R&D) 산업 클러스터가 안착된 배경으로 ▲인천·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최상의 입지여건, 그리고 ▲주거단지 조성으로 직주근접 기능 강화 ▲업무상업단지, ▲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친환경 융복합 자족도시 조성을 꾀는다.

○ 서울시는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. 주거, 기반시설, 산업단지 485필지 중 426필지 135만 $m^2$ 를 10년에 걸쳐 공급했다.

○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·상업시설도 고루 갖췄다. 서울시는 지역활성화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(총 12,030세대(단독주택 포함))를 조성했다.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'직주근접' 효과를 강화했다.

○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소를 포함한 강서구 통합청사도 마곡 이전이 예정돼있어 업무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.

□ 특히, 기업 연구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(인프라)을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·컨벤션, 문화·예술,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식물원, LG아트센터, 스페이스K 등 총 64만 $m^2$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한 것이 마곡산업단지로의 유입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.

- 마곡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서울식물원은 50만  $m^2$ 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.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으로 2018년 10월 개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. 서울식물원에는 2,74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. 월 평균 44만 명이 방문한 셈이다.
  - 2018년 10월 11일(임시개방)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62개월간 서울식물원이 집계한 수치(자체 통계)로 총 방문객은 27,441,999명이다.
-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인 LG와 코오롱의 사회공헌(공공기여)을 통해 조성된 LG아트센터와 스페이스K는 전시·공연 관람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.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맡아 건축물 그 자체로도 볼거리가 되는 LG 아트센터는 연극, 뮤지컬,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곡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. 곡면의 건축물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스페이스 K는 서울 서남권의 첫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.
- 2024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마곡에 들어선다.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(MICE:기업회의·포상관광·컨벤션·전시) 시설인 ‘코엑스마곡-르웨스트’(운영사 코엑스)는 내년 11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. 서울시는 마곡 내 상업, 문화, 관광의 복합기능이 도입됨으로써 혁신 업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  - 마곡 MICE 복합단지는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(SH)가 민간사업자를 공모(사업시행자: 마곡마이스PFV주식회사)해 추진 중이며 2021년 착공돼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.

□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“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일과 삶이 연결되고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 최적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.”며, “2027년까지 기업 입주율 100% 완료되고,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, 1천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되는 만큼,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기반시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마곡산업단지 전경

2.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주요 통계 (2022년 기준)

붙임 1. 마곡산업단지 전경



LG아트센터



마곡산업단지 전경



스페이스K



서울식물원

## 붙임 2.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주요 통계 (2022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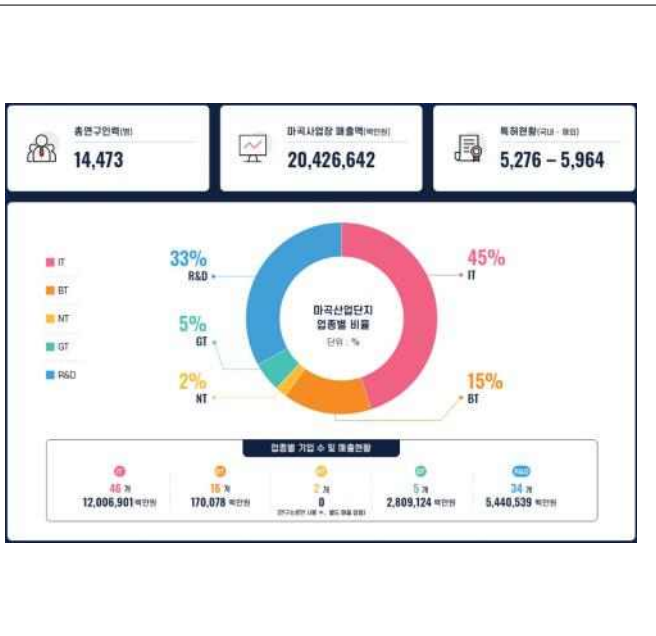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1.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마곡사업장 매출액(업종별)〉



〈그림 2.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인원〉



〈그림 3. 마곡산업단지 연구개발(R&D) 투자액〉



〈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통계\_2022년 기준〉